

격월간 1999년 2월 10일 · 통권 15호 · 고용평등추진본부 발행 · 1996년 9월 20일 등록 · 등록번호 마2617

평

제15호

1999년 1·2월



특전 간접차별 · 성희롱 없는 일터를 향한 일본전진

기획 아줌마의 힘

역사 속의 그 여자 조선여성의 선각자, 유영준

평등의 대화 당찬 신인배우, 김여진

젠더화일 성적 안정성이 실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추진본부

평등

제15호 1999년 1·2월

고은광순 4	기획 아줌마의 힘
윤최윤선 6	억압에 저항하는 씩씩한 아줌마
송승민 10	'아줌마', 세상을 일구는 노동자
13	역사 속의 그 여자 조선여성의 선각자, 유영준
백수란 14	함께 참여합시다
이인숙 16	우리 또 같이 여해그림
18	평등의 대화 당찬 신인배우, 김여진
20	여성노동뉴스
최명숙 21	특집 간접차별·성희롱 없는 일터를 향한 일보전진
최명숙 23	여성이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을 적용하면 그것도 차별이다!
박봉정숙 25	대통령직속 여성특위에도 성차별 신고할 수 있다
27	직장내 성희롱, 이것이 궁극하다
황은영 30	성희롱 없는 일터 만들기
김보영 32	문화노킴 '직장내 성희롱' 다루는 언론시각, 문제있다
최명숙 35	생활속의 여성학 여성, 이제 '출산의 주체로!
전운정 36	상담노트 반납된 상여금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니까?
배수원 37	정보시대 쏟아지는 스팸에게서 우리를 자유케 하라
최규나 38	환경에세이 생물예찬
하명희 40	일터이야기 착한 사람들(?)이 일하는 곳
김연홍 42	'평등'에 관한 작은 메아리
최영은, 전홍기혜 44	작은승리!
47	젠더와일 성적 안정성이 실업에 미치는 영향
48	일하는 여성독집 소식
배수원 50	평등의 눈
	평등만화

평등의 창

'야한 눈빛도 성희롱', '무심코 던진 농담도 성희롱?', '성희롱하면 이젠 퇴출', '나, 떨고 있니?'

각 신문의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제정과 관련된 기사의 헤드라인들이다. '고용불안 심화시켰던 성희롱, 돌파구 생겼다' 라든가 '직장여성들, 성희롱 이젠 조금 안심' 등의 여성의 입장을 중심적으로 담은 기사는 어느 신문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거의 모든 매체가 너무나 편파적으로 남성들이 성희롱을 못함으로 인해 생기는 불안한 심리만을 대변하며 오히려 성희롱에 대한 예방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법안을 비아냥거리려는 투의 보도로 일관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다.

그러나! 법안의 허술함에 비해 호들갑스러운 정도로 과민반응을 보이며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남성중심적 해석의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는 거부장세력에 대항하여 우리는 왜곡된 관심이나마 관심이 증폭된 이 때를 호기삼아 역군을 펼쳐야 한다. 성폭력에 둔감하고 남성 일방적인 성행동에 너무나 관대한 이 사회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남성위주의 직장문화에 조그마나마 파장을 일으켜야 할 것이다.

물론 현재 성희롱에 가려 빛을 못보고 있는 슈퍼 울트라 간접차별폭탄을 비밀리에 치밀히 제작하면서 말이다.

『평등』· 격월간 발행일/1999년 2월 10일
 등록일/1996년 9월 20일 등록번호/마2617
 발행처/사단법인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추진본부
 발행인/정강자 편집인/송현미
 디자인/정태경 사진/조지민
 기획·진행/백수란·문정민·이인숙·박봉정숙·최명숙
 인쇄인/유홍중(삼영칼라)